

#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 The Influence of Anxiety over Aging of the Elderly Group on Successful Aging and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김정희\*, 박지영\*\*

서울여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화여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Jeong-Hui Kim(junghui0813@naver.com)\*, Ji-Young Park(jypark@ggwf.or.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의 노화불안이 증가할수록 성공적 노화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노화불안과 사회적 지지 관계에서 노화불안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증가는 성공적 노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의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노화불안 감소와 성공적 노화를 위한 방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 중심어 : | 노화불안 | 사회적지지 | 성공적 노화 | 매개효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influence of anxiety over aging of the elderly group on successful aging. The results of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as anxiety over aging of the elderly group increased, the successful aging decreased.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over aging of the elderly group and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decreased as anxiety over aging increased.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uccessful aging, an increase of social support led to an increase in successful aging. Fourth, Old man in relationship to and successful aging of ageing in the social support mediated effect parts of their identified. Thus, this study suggests measures to decrease the anxiety over aging of the elderly group for the successful aging and proposals for the further studies in an aging society.

■ keyword : | Anxiety Over Aging | Social Support | Successful Aging | Mediation Effect |

## I. 서론

인구고령화는 최근 사회변동의 현상으로서 한국을

비롯한 서구국가에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향후 50년간 세계인구 구조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청년층 감소와 노령 인구의

접수일자 : 2015년 04월 10일

수정일자 : 2015년 04월 22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4월 22일

교신저자 : 김정희, e-mail : junghui0813@naver.com

비중이 증가함에 따른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18]. 또한 인구 고령화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전 생애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노인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다양하게 경험하는 요인과 성공적 노화 적응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21C의 노인들은 기존 노인들보다 경제력과 건강 등의 자원 보유는 물론이거니와 노년기를 편안하고 질병 없이 보내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성공적 노화는 노인들의 주요한 관심사가 될 뿐 만 아니라, 연구 주제로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19]. 또한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노년기를 실패의 시기 아닌 새로운 창조의 시기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노인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예방적인 관점에서 노인들의 잠재력 극대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성공적인 노화 경험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사회에서 보호 받아야 할 일부 노인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 중심관점보다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10].

성공적 노화는 Rowe and Kahn(1998)의 '보편적인 노화(usual aging)와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로 개념적 분류 되어 세계 모든 국가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소개되어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 하게 되었다 [7-10][12][19]. 또한 2007년 한국노년학회 특집호의 주제가 성공적 노화였으며, 올해 미국의 노년학회에서도 성공적 노화의 주제가 특집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학문적 논의와 연구동향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연구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 수행과정에서 노인의 삶을 저해하는 요소로 예측되는 노화불안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노년의 삶을 위한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심리적 요소의 노화불안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노화불안은 노화 과정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불안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노화과정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32]. 또한 Wakins and Coates and Ferroni(1998)는 늙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노화불안의 의미로 제시하였으며, 노화불안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노년기의 성공적 노화 경험의 중요한 요인으로 유추할 수 있다. Lynch(2000)는 노화불안이 개인의 노화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저해 할 뿐 아니라 노인의 태도와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노화불안은 노인의 심리적 기제로써 노인 개인과 가족차원을 넘어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학문적 논의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그 심각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2][4][5][12][25].

기존의 성공적 노화와 노화불안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기민·이정은(2012)은 노인의 생활스트레스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생활스트레스는 성공적 노화 경험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8]. 그리고 강해자(2012), 김정희(2013)는 노화불안이 증가 할수록 성공적 노화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김현정(2014)의 실버소비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노화예방제품수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적 역할 변수로써 사회적지지 하위요인인 가족 지지는 노화불안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홍성희·곽인숙(2011)도 노화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원이 유배우자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성공적 노화와 노화불안 간의 기존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인구 고령화를 적극 반영하였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공적 노화와 노화불안간의 관련성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성공적 노화와 노화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1. 현대 사회는 생활양식의 변화, 의학기술의 발달, 삶의 만족에 대한 관심 등의 요인으로 인구고령화의 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다. 202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15.7%, 2030년은 24.3%, 2040년은 32.3%, 2050년은 37.4%, 2060은 40.1%로 상승하여 세계 최고령국가에 도달한 전망이다(통계청, 2010).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서 한국은 OECD회원국가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 진입을 하고 있다(통계청, 2014).

그리고 성공적 노화와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에서 Row and Kahn(1998)은 노년기의 낮은 사회적 지지와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은 노인의 건강과 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하였다. 정옥분·임정하·정순화·김경은(2013)도 노년기의 높은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 노화 경험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김정희·김옥·김숙향·이경준(2014)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높은 사회적 지지는 노화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노화불안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기제로써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 첫째, 노인의 노화불안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노인의 노화불안은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노인의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 II.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

### 1. 노인의 노화불안

노화불안은 생애주기발달과정에서 노화 적응과정과 노년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이 들어감에 따라 느끼는 걱정과 두려움의 복합된 개념이다[5][32]. Lasher and Faulkender(1993)는 노화불안을 노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노후에 대한 심리적 불안정, 외모에 대한 걱정, 노년기에 경험하게 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다면적인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화불안은 사회구성원들이 지니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노화불안은 노화와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걱정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과정은 노인들의 노

화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가시켜 노화불안을 발생시킨다. 노화(aging)는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삶의 주기에서 신체·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삶의 과정으로 미래에 야기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노화는 사회적 노화(social aging), 심리적 노화(psychological aging), 생물학적 노화(biological aging), 시간의 경과 즉, 나이 들어가는 것의 네 가지 측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사회적 노화는 신체·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족, 이웃, 지역사회, 국가사회의 집단 속에서 지위획득과 역할수행에서 사회적 관계 유지와 지위의 변화 및 상실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노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간의 심리적 감각기능, 심리근육운동기능, 지각기능, 정신기능, 본능적 욕구, 동기, 정서와 성격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물학적 노화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노화의 주된 원인은 신체의 내적인 것이며, 또한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 신체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죽음에 도달하는 결과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화의 시간경과는 나이 들어가는 측면으로 역연령(chronological age)을 나타내며 시간 경과만을 의미한다[30].

또한 현대의 노인들은 흰 머리카락을 감추기 위해 염색을 하거나, 주름을 감소시키고자 피부재생 시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젊게 보이기 위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노화를 연장하고 더 건강한 삶, 웰빙 하는 삶을 누리고자 하는 노력을 엿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노화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나타낸다. 또한 젊음을 추구하는 ‘젊음 지향적 사회(youth-oriented society)’는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노년기 삶에 대한 걱정과 불안상태를 초래한다[5]. 따라서 사회구성원이 인식하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노인에 대한 불안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어 노인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2. 성공적 노화

Rowe and Kahn(1998)은 적극적 사회참여모델에서 질병에 의한 장애위험의 회피와 낮은 질병,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 유지, 적극적인 인생참여 지속을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sup>2</sup>개념으로 제시하여 신체·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였다.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성장과 함께 노년기 삶의 질적 가치 증진을 위한 관심을 증가 시켰으며, 수명 연장보다는 생의 의미와 대상자의 질적인 삶을 고려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공적 노화 경험을 중요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생물학적 쇠퇴와 손실에 초점을 둔 노년학 초기의 노인에 대한 노화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강점관점의 시각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성공적 노화를 바라보게 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관심이 되었다.

Baltes and Baltes(1990)는 경제학 관점에서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상실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선택, 적정화, 보상의 세 가지 요인의 적응과정으로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였다. 또한 생애주기 발달심리학의 관점에서 SOC(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이론을 제시하여 성공적 노화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성공적 노화의 주관적·객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인과 문화적 차이를 인정 할 수 있는 SOC모델을 개발하였다. SOC모델은 보충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로 노년기에 가능한 것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부족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충하고 노인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성공적 노화로 설명하고 있어 노년기의 성공적 노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소개되어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전개 되었다. 김동배(2008)는 한국 노인에게 적합한 자율적인 삶,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인 인

생 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수용, 타인수용을 성공적 노화 개념으로 구성하여 성공적 노화 척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안정신·강인·김윤정(2009)은 일상생활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을 한국 중년과 노년의 성공적 노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남기민·이정은(2012)도 성공적 노화를 생애주기 발달과정에서 노년기의 역량강화 및 자아통합의 완성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 관점에서 심리적 안녕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살펴본바와 같이 성공적 노화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성공적 노화는 결국 행복한 노년을 위한 삶의 만족을 포함하고 있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위기상황 극복과 건강한 노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성공적인 노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 3. 사회적지지

박지원(1985)은 가족, 친구, 이웃, 전문가 등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사회적 지지로 정의하였으며,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개인 자신이 사회 성원들에게 존경과 애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행위에 관련된 것이며, 정보적 지지는 개인과 환경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물질적 지지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을 도와주는 행위로 설명되며, 평가적 지지는 개인에게 역할 수행과 행위에 관한 구체적 평가정보를 전달하여 개인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으로 노년기의 사회적지지 체계나 자원들의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증가되어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지지 요인을 노년기의 심리적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예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35].

2. Rowe and Kahn(1998)은 1984년부터 7년간 맥아더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미국 노인(70세-79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관계망의 특징, 신체적·인지적 기능, 심리적 기능, 생산적 활동의 5가지 영역을 7년간 종단적으로 측정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 결과를 토대로 성공적 노화를 개념화 하였다.

#### 4. 노인의 노화불안, 성공적 노화, 사회적 지지의 관계

노인의 노화와 관련된 불안감은 노화과정에 따라 미래에 야기 되는 불안으로 자신의 노화과정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노화를 실제 경험하고 있는 노인의 노화불안 관련 연구와 고찰은 매우 중요하며, 노인의 노화불안, 성공적 노화,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살펴보면, 김신미·김순이(2009)는 성별, 결혼상태, 질병유무, 건강수준이 노년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노화불안이 증가할수록 성공적 노화 경험은 감소한다는 김정희(2013)의 연구와 강해자(2012)의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 간의 연구에서도 노화불안이 감소할수록 성공적 노화는 증가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를 통하여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간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높은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 노화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4]와 또한 높은 사회적 지지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21]. 오승환(2007)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생활만족도<sup>3</sup>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정옥분·임정하·정순화·김경은(2013)의 연구에서도 높은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인지기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민주(2013)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높은 가족지지는 성공적 노화를 증가 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셋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노년기에 경험하는 소외감, 외로움, 역할상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등은 노인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성공적 노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소로 설명된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장애요소는 사회적 지지 변인을 통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윤현숙·구본미(2009)

3. 생활만족도는 성공적 노화의 유사 변수로 성공적 노화와 사회적 지지간의 요인으로 상관관계 확인은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는 우울변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보고하였으며, 김영주(2009)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여 농촌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문제해결요소로 보고하였다<sup>4</sup>. 그리고 김정희 외(2014)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노화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결과 또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신은숙·권인선·조영채(2011)의 연구에서도 높은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보고하였다. 김현정(2014)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가족지지를 노화불안 감소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를 통해 노년기의 사회적 지지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노화불안 경험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노화불안, 성공적 노화,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공적 노화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노인의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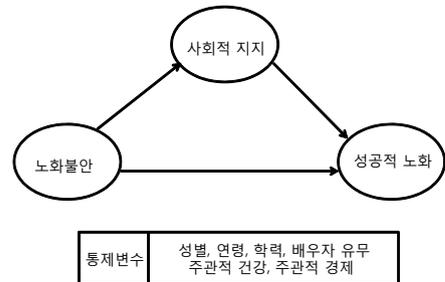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4. 우울은 슬프고 불행한 감정을 의미하며,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는 상태를 포함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안에 대한 기존연구의 제한점으로 인하여 우울 변인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 동안 만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서울 동부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1곳과 서부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1곳, 그리고 경기도 의왕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1곳, 경로당 3곳에서 설문조사 하여 불완전응답 34부를 제외한 466부의 설문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조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설명과 연구 참여에 동의 한 대상자만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고령으로 인해 설문이 어려운 대상자는 일대일 개별면접방식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빈도분석과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 주관적 경제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를 계산하였다. 셋째, 회귀분석 실시 전에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판단을 위해 공선성 통계량에 산출된 공차한계와 분산확대지수(VIF)를 사용하여 다중공선성 유무를 확인 하였다. 넷째, 노인의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은 위해서 Baron and Kenny(1986)<sup>5)</sup>의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유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sobel test를 사용되었다[18].

5. Baron & Kenny의 세 단계 회귀분석: 첫 번째 단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회귀분석 하여 그 결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가져야하며 두 번째 단계는 독립변수를 매개변수에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종속변수를 매개변수와 독립변수와 동시에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동시에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가 두 번째 단계의 효과보다 작을 때 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때 매개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수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 효과가 큰 것이며, '0'이 되면 완전 매개효과를 지닌다(박용권, 2010).

sobel test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주) } Z_{ab}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a$  (비표준화계수) : 독립변수 → 종속변수

$b$  (비표준화계수) : 매개변수 → 종속변수

$SE_a$  :  $a$ 의 표준오차

$SE_b$  :  $b$ 의 표준오차

## 4. 측정도구

### 4.1 종속변수 :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는 한국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김동배(2008)의 성공적 노화 척도를 연구에 사용 하였다. 성공적 노화 척도는 총 31 문항으로 자율적인 삶 9문항, 자기완성지향 6문항, 적극적 인생참여 5문항, 자녀에 대한 만족 5문항, 자기수용 3문항, 타인수용 3문항으로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의 증가를 의미한다. 김동배(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9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 는 .94이다.

### 4.2 독립변수 : 노화불안

본 연구에서 노화불안은 김옥(2010)이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노인이 더 노인이 되었을 때를 고려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번안하여 보완된 AAS(Anxiety about Aging Scale)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노화불안척도는 총 20문항으로, 노인에 대한 두려움 5문항, 심리적 불안정 5문항, 외모에 대한 걱정 5문항, 상실에 대한 두려움 5문항으로 긍정 13문항, 부정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매우 그렇다' 1, '그렇다' 2, '보통이다' 3,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으며 원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2이고, 김옥(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5,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7로 나타났다.

4.3 매개변수 :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Zimet(1988) 등이 고안한 MSPSS(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손덕순(2005)이 가족 지지 3문항, 친구 지지 3문항, 전문가 지지 2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4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손덕순(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4이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5로 나타났다.

4.4 통제변수

통제 변수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노인의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 주관적 경제수준을 반영 하였다.

성별은 '남성' 1, '여성' 2로 측정하였으며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더미 처리하였다. 연령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측정 하였으며, 배우자 유무는 '유배우자' 1, '무배우자' 2로 측정하여 유배우자는 1, 무배우자는 0 으로 더미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은 '초

등학교 졸업' 1, '중학교 졸업'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졸업' 5의 단계로 구성되어 측정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은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1, '건강하지 못하다' 2, '보통 이다' 3, '건강하다' 4, '매우 건강하다' 5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경제는 '매우 나쁘다' 1, '나쁘다' 2, '보통이다' 3, '좋다' 4, '매우 좋다' 5로 구성되어 측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57.9%(270명), 여성 42.1%(196명), 연령은 65세-74세 16.3%(76명), 75세-84세 29.2%(136명), 85세 이상 32.2%(150명)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5.8%(167명)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졸업 23.8%(111명), 초등학교 졸업 23.2%(108명), 대학교 졸업 13.9%(65명), 대학원 졸업 3.2%(1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변인	범주	빈도(N)	백분율(%)
성별(n=466)	남성	270	57.9
	여성	196	42.1
연령 (M=75.20)/(SD=5.70)	65세 ~ 74세	76	16.3
	75세 ~ 84세	136	29.2
	85세 이상	150	32.2
학력	초등학교 졸업	108	23.2
	중학교 졸업	111	23.8
	고등학교 졸업	167	35.8
	대학교 졸업	65	13.9
배우자 유무	대학원 졸업	15	3.2
	유배우자	271	58.2
	무배우자	192	41.2
	무응답	3	0.6
주관적 건강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13	2.8
	건강하지 못하다	75	16.1
	보통이다	196	42.1
	건강하다	129	27.7
	매우 건강하다	53	11.4
주관적 경제	매우 나쁘다	26	5.6
	나쁘다	57	12.2
	보통이다	314	67.4
	좋다	55	11.8
	매우 좋다	14	3.0

으며, 고등학교 졸업이상이 52.9%(247명) 결과를 보여 교육수준이 과거보다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배우자 유무에서 유배우자 58.2%(271명), 무배우자 41.2%(192명), 무응답 0.6%(3명)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은 보통이다 42.1%(196명), 건강하다 27.7%(129명), 건강하지 못하다 16.1%(75명), 매우 건강하다 11.4%(53명),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2.8%(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관적 경제를 살펴보면, 보통이다 67.4%(314명), 좋다 11.8%(55명), 나쁘다 12.2%(57명), 매우 나쁘다 5.6%(26명), 매우 좋다 3.0%(14명)의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경제 상태에서 보통인 대상자는 67% 이상을 보여 주어 연구대상자의 경제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 2. 노인의 노화불안, 성공적 노화, 사회적 지지의 수준

연구대상자의 노화불안, 성공적 노화, 사회적지지 수준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첫째, 노화불안은 5점 만점에 전체 평균 2.77점(SD=.38)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두려움’ 2.23점(SD=.74), ‘심리적 불안정’ 2.50점(SD=.77), ‘외모에 대한

걱정’ 2.74점(SD=.68), ‘상실에 대한 두려움’ 3.34점(SD=.74)으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이 노화불안 요인에서 가장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성공적 노화수준을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 5점 만점에 3.83(SD=0.54)점으로 ‘자녀에 대한 만족’ 3.97(SD=0.73), ‘자기완성 지향’ 3.80(SD=0.66), ‘자기수용’ 3.72(SD=0.80), ‘타인수용’ 3.80(SD=0.67)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자율적인 삶’은 4.02(SD=0.55)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적극적인 인생참여’는 3.67(SD=0.77)로 가장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는 4점 만점에 전체 평균 3.10점(SD=.39)으로 ‘가족 지지’ 평균 3.17점(SD=.39), ‘친구지지’ 평균 2.16점(SD=.58), ‘전문가 지지’ 평균 3.01점(SD=.72)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지지’의 평균이 사회적 지지 요인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 3. 변인 간의 상관관계

[표 3]은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과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분석결과이다. 노화불안은 학력, 주관적 건강, 주관적 경제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성별,

표 2. 노화불안, 성공적 노화, 사회적 지지의 수준 (N=466)

변인	측정 항목	평균 (M)	표준편차 (SD)	최소값 (Min)	최대값 (Max)
노화 불안	노인에 대한 두려움	2.23	.74	1.00	4.80
	심리적 불안정	2.50	.77	1.00	5.00
	외모에 대한 걱정	2.74	.68	1.00	4.75
	상실에 대한 두려움	3.34	.74	1.17	5.00
	평균	2.77	.38	-	-
성공적 노화	자율적인 삶	4.02	0.55	1.33	5.00
	자기완성 지향	3.80	0.66	1.50	5.00
	적극적 인생 참여	3.67	0.77	1.00	5.00
	자녀에 대한 만족	3.97	0.73	1.00	5.00
	자기 수용	3.72	0.80	1.00	5.00
	타인 수용	3.80	0.67	1.00	5.00
	평균	3.83	0.54	-	-
사회적 지지	가족 지지	3.17	.39	1.67	4.00
	친구 지지	2.16	.58	1.00	4.00
	전문가 지지	3.01	.72	1.00	4.00
	평균	3.10	.39	-	-

표 3. 변수간의 상관관계 (N=466)

변인	1	2	3	4	5	6	7	8	9
1	1								
2	.052	1							
3	.358***	-.191**	1						
4	.335**	-.186***	.243**	1					
5	-.071	.224***	-.116*	-.150**	1				
6	.017	.104*	-.111*	-.153**	.313**	1			
7	.028	-.088	-.118*	.066	.158**	.120**	1		
8	-.110*	.097*	-.036	-.124**	-.023	-.165**	-.311**	1	
9	-.173**	.058	-.036	-.123**	-.154**	-.207**	-.485**	.530**	1

\*p<.05 \*\*p<.01 \*\*\*p<.001

주) 남성=1, 여성=0, 유배우자=1, 무배우자=0으로 더미변수 처리

※ 1은 성별, 2는 연령, 3은 학력, 4는 배우자 유무, 5는 주관적 건강, 6은 주관적 경제, 7은 노화불안, 8은 사회적 지지, 9는 성공적 노화

연령, 배우자 유무, 주관적 경제변인이 노화불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노화불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beta=-.311, p<.01$ ).

마지막으로 성공적 노화는 성별,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 주관적 경제 변인, 노화불안,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성공적 노화가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는 증가되고 노화불안은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beta=.530, p<.01$ ).

박용권(2010)은 변수간의 상관관계 파악을 위해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사용하여 다중공선성 확인을 제안하였다. 분산확대지수는 독립변수와 나머지 변수들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R<sup>2</sup>의 값이 1에 가까우면 VIF는 거의 무한 값을 갖게 되어 높은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분산확대지수가 5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분산확대지수는 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4.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모델 1, 모델2, 모델3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방법에 따라 모델1은 독립변인인 노화불안과 종속변인

인 성공적 노화 관계를 확인한 모형, 모델2는 독립변인인 노화불안과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 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한 모형, 모델3은 독립변인인 노화불안과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 그리고 종속변인인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확인한 모형이다.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델1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에서 성별( $\beta=-.153, p<.01$ ), 주관적 경제( $\beta=-.143, p<.01$ ) 요인이 노화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독립변인인 노화불안은 종속변인인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beta=-.445, p<.001$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aron and Kenny가 제안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모델2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중에서 주관적 경제( $\beta=-.168, p<.001$ )변인만 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인 노화불안이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beta=-.283, p<.001$ )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모델3은 인구사회적변인들 중에서 성별( $\beta=-.136, p<.01$ ), 주관적 건강( $\beta=-.083, p<.05$ )이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독립변인인 노화불안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beta=-.332, p<.001$ ),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 변인과도 유의미한 영향을( $\beta=.398, p<.001$ )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표 4.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N=466)

변인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노화불안 → 성공적 노화		노화불안 → 사회적 지지		노화불안, 사회적 지지 → 성공적 노화	
	회귀 계수	B(SE)	β	B(SE)	β	B(SE)	β
성별(남성=1)		-.164(.048)	-.153**	-.035(.040)	-.043	-.145(.379)	-.136**
연령		.005(.004)	.050	.004(.003)	.054	.003(.043)	.028
학력		.017(.021)	.035	-.029(.018)	-.079	.032(.004)	.066
배우자(있음=1)		-.067(.047)	-.074	-.066(.039)	-.089	-.045(.042)	-.042
주관적 건강		-.037(.024)	-.068	.016(.020)	.038	-.046(.021)	-.083*
주관적 경제		-.099(.029)	-.143**	-.088(.024)	-.168***	-.052(.027)	-.075
노화불안		-.617(.056)	-.445***	-.296(.046)	-.283***	-.461(.053)	-.332***
사회적 지지						.528(.051)	.398***
Adjusted R <sup>2</sup>		.293		.144		.428	
F(sig.)		23.671***		11.045***		42.768***	

\*p<.05 \*\*p<.01 \*\*\*p<.001 주) 성별, 배우자 유무는 더미변수 처리.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통제 되어도 독립변인인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노화불안이 사회적지지의 영향으로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되어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 5. 매개효과 분석

매개효과 검증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간접효과’라고 하며 전체 인과적 효과(총 효과)는 ‘직접효과 + 간접효과’이다. 본 연구에서 총 인과적 효과에서 직접효과는 -.445이며, 간접효과는 -.125로 총 인과적 효과는 -.570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은 Sobel검증, Aroian검증, Goodman 검증, Bootstrapping을 통한 검증이 가능하다 [18].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표 5]와 같이 제시 한다.

표 5.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path	Z	P value	매개 효과
노화불안→사회적 지지→성공적 노화	2.01	0.044	부분매개 효과

\*p<.05, \*\*p<.01, \*\*\*p<.001

Z값이 1.9이상의 값을 나타내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의 경로분석에서 Z값 이 2.01의 결과를 보여주어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였다. 이를 통해 노화불안 감소와 성공적 노화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의 실천·정책적 개입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화불안이 증가할수록 성공적 노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노화불안은 심리적 측면에서 성공적인 노화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기민·이정은(2012)의 연구에서 노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성공적 노화는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김신미·김순이(2009)의 노인의 노화불안과 삶의 질의 연구에서 성별, 학력, 결혼상태 등의 요인들은 노화불안에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김정희(2013)는 노인의 노화불안이 증가할수록 성공적 노화는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이들 선행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노화불안 증가는 성공적 노화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지지할 수 있다.

둘째, 노인의 노화불안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김신미·김순이(2009)의 노화불안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김욱(2010)의 한국과 미국노인의 노화불안 비교연구에서 한국노인, 미국노인 모두 사회적 지지가 노화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와도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화불안과 유사변인<sup>6</sup>으로 우울 및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관계를 통하여 노화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사회적 지지 변인이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Baron and Kenny가 제안한 3단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민주(2013)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성공적 노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하였으며, 정옥분 외(2013)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여성노인의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성공적 노화 경험을 증가시킨다는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김정희(2013)의 연구에서도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노화불안의 증가는 성공적 노화 감소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홍성희·곽인숙(2011)은 노년기 노인들은 가족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와 강해자(2012)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의 연구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와 유사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년기에 경험하는 노화불안 감소와 성공적 노화 경험을 위한 기제로써 사회적지지 변인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노인의 노화불안 감

소와 성공적 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및 실천·정책적 개발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년기의 노화불안 최소화는 성공적 노화 적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노화불안 감소를 위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노화로 인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인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홍보와 취약노인의 참여를 위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이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 및 법적, 제도적 장치의 완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노인의 사회적 활동 감소에 따른 불안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사회적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물론이거니와 생산적 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노년기의 성공적 노화 적응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노인에 대한 힘없고, 병들고, 보호 받아야만 하는 부정적 인식과 편견은 노인 스스로가 노인에 대한 나약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며, 또한 성공적 노화 적응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젊음지향주의 인식 전환을 위한 생애주기 발달과정으로 노년기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의 노인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요하겠다.

셋째, 노인의 사회적 지지 향상을 위한 노인 개인,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 대상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의 사회적 역할 회복은 노인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여 노년기의 신체, 정서·심리적, 사회적으로인 노화불안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상황은 성공적 노화 경험을 가능하게 하여 노년기의 삶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과 의왕 시에 소재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상자에 국한하

6.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안의 근원으로, 스트레스는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 개인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Lazarus & Folkman, 1984; 이은주·최희철, 2011 제인용) 불안은 스트레스로 인한 가장 일반적인 반응으로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이를 대처하지 못해 우울 및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이은주 외, 2011). 이러한 측면에서 노년기에 발생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스트레스, 우울, 노화불안을 유사변인으로 본 연구에 적용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여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확대와 확률표집을 통한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화불안의 다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노인에게 적합한 척도를 개발하여 향후 연구에 적용하는 필요성과 다양한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노화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성공적인 노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적극 반영한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노년기 노화불안 감소와 성공적인 노화 경험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강해자,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독거노인과 비독거 노인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제57호, pp.191-220, 2012.

[2] 김동배,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0호, pp.211-231, 2008.

[3] 김순이, “일 지역 노인의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1호, pp.7-15, 2005.

[4] 김순남, 최순옥, 신경일, 이정희, “노화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7호, pp.292-301, 2008.

[5] 김옥, “한국노인과 미국노인의 노화불안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제47호, pp.71-94, 2010.

[6] 김영주, “농촌노인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노인복지학회, 제46호, pp.77-104, 2009.

[7] 김미령, “준 고령자의 성공적 노화요소의 삶의 만족도 영향 및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국민연금연구원, 2013.

[8] 김정희,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9] 김정희, 김옥, 김숙향, 이경준,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제64호, pp.323-343, 2014.

[10] 김현정, 실버소비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노화예방제품수용에 미치는 영향: 노화불안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1] 노병일, 모선희, “사회적 지지 수준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제27호, pp.53-69, 2007.

[12] 남기민, 이정은, “노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노인복지학회, 제57호, pp.85-112, 2013.

[13] 문남숙, 남기민, “노인의 죽음준비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 한국노년학, 제28호, pp.1227-1248, 2012.

[14]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 “노년기 사회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제20호, pp.79-89, 2013.

[15] 박지원,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16] 배병렬, Amos 19 구조방정식의 모델링, 청람.

[17] 서인균, 고민석, “학대경험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제31호, pp.127-157, 2011.

[18] 서용석, 은민수, 이동우, 사회변동과 사회복지정책, 고려대학교출판부.

[19] 안경숙, “노인부부가구·노인독신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5권, 제1호, pp.1-19, 2003.

[20] 오승환, “노인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소도시·농촌·어촌지역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23호, pp.209-231, 2007.

[21] 이민주,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선택·최적화 보상 전략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22] 이묘숙,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노인의 경제상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학회, 제57호, pp.289-314, 2012.

[23] 이향란, *고령자의 생산적활동,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에 따른 성공적 노화*,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4] 이혜경, 이병록,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지지와 일상생활기능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8호, pp.201-225, 2011.

[25] 윤현숙, 구본미, “노인의 건강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제61호, pp.303-324, 2009.

[26]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 “노년기 사회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개인적 자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인간발달 연구, 제20호, pp.79-99, 2013

[27] 조혜경,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28] 최성재, *고령화 사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9] 홍성희, 박인숙, “노화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 유배우 노인과 무배우 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49권, 제4호, pp.78-81, 2011.

[30]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31] \_\_\_\_\_(2014), *고령자통계*.

[32] P. B. Baltes and M. M. Baltes,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1-34. In *successful aging: Perspective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Baltes, M. M.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33] B. J. Fisher, “Successful aging, life satisfaction, and generativity in later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41, No.3, pp.239-250, 1995.

[34] K. P. Lasher and P. J. Faulkender,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Vol.37, No.4, pp.247-259, 1993.

[35] S. M. Lynch, “Measurement and Predication of aging anxiety,” *Res aging*, Vol.22, No.5, pp.533-558, 2000.

[36] J. W. Rowe and R. H. Kahn, *Successful Aging*, New York: Dell Publishing a Division of Random House, 1998.

[37] L. Rudkin, Social support. In R Schulz, L. S. Noelker, K. Rockwood, & R. L. Sprott(Eds.), *The Encyclopedia of Aging*, pp.1121-1126, 4th e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06.

저 자 소 개

김 정 희(Jeong-Hui Kim)

정희원



- 2010년 :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학사)
- 2013년 : 경기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15년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2014년 8월 28일 ~ 현재 : 오산대 아동보육과 외래강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 (노인)

박 지 영(Ji-Young Park)

정희원



- 2002년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사
- 2009년 :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
- 2009년 9월 ~ 현재 :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 2015년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 (노인)